

5월, 다시 따뜻한 봄을 이야기하다

제30회 '제주4·3예술축전' 오는 13일 4·3평화공원에서 도민 함께 역사맞이 거리극



5월에, 4·3의 역사적 의미를 예술로 되새겨본다.

오는 13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사)제주민예총이 주관하는 4·3항쟁 75주년 30회 4·3예술축전 '사월, 바람의 혁명'이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다.

제주민예총은 "제주4·3항쟁의 국면에서 중요한 분수령이 됐던 5·10 단선 반대 운동을 예술적으로 조명하면서 통일된 자주독립국가를 꿈꾸었던 당대 민중의 열망을 적극적으로 조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94년 제주민예총이 발족

된 후 4·3의 진실을 예술로 규명하고자 했던 30년간의 예술적 성취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4·3예술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기도 하다.

올해 예술축전은 역사맞이 거리극 '다시, 바람의 노래'와 도민들

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4·3문화마당으로 채워진다.

이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4·3평화기념관 문주 앞에서 열리는 4·3문화마당엔 그때 그시절 피난음식 체험부터 4·3과 평화, 인권, 환경 등 다양한 체험·홍보 부스가 운영

된다.

역사맞이 거리극 '다시, 바람의 노래'는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다. 김늘이로 여는 거리극은 4·3의 그늘린 흔적의 기억을 일깨우는 퍼포먼스와 제주민중항쟁의 역사적 기억을 풀어내고, 상처를 보듬고, 따뜻한 봄을 이야기하는 무대로 꾸며진다.

국악연희단하나아트, 민요패 소리앗, 마로, 제주작가회의, 제주큰굿 보존회 서순실 회장, 배우이자 탈꾼 김수보, 민중 가수 최상돈 등과 함께 풍물굿패신나락, 춤꾼 김한결, 박연술, 윤정애, 퓨전국악그룹 풍류, 범씨학교, 어린이 합창단 클럽 노래하자 춤추자, 고등래퍼 김다현 등이 출연해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오른지기자 ejoh@ihalla.com

제주에서 만나는 노원 신진작가들

제주문예진흥원-노원문화재단 교류전 이달 13~24일 문예회관 제3전시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이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제3전시실에서 노원문화재단 신진 청년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2023 노원문화재단 신진작가 제주 교류전 'Take a Look'을 개최한다.

노원문화재단은 지난 2019년부터 서울 노원구에서 활동하는 만 39세 이하의 청년 미술작가를 대상으로 '노원문화재단 시각예술 신진작가 지원사업'을 진행해 왔다. 올해는 김도하(도예), 유수민(회화), 조연미(회화), 최서현(회화) 4명의 작가가 선정됐다.

전시장은 페인팅, 도예 분야 약 40여 점을 만나볼 수 있다. 무료 관람이며, 전시시간 중(13~15일) 전시해설(매일 3회(오전 11시, 오후 2·4시))도 진행된다.

제주문예진흥원 김태관 원장은 "제주와 노원구의 지속적인 미술 교류로 청년작가들의 전시 기회를 확대하고 작가 및 지역의 미술분야



김도하 작 '모'

역량을 강화하기를 기대한다"며 "지역 청년작가 지원 육성과 도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하고 수준 높은 전시사업 추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10월엔 '2023 제주문예진흥원 청년작가 지원사업'에 선정된 제주미술작가 3명의 작품전이 서울 노원구에서 이뤄진다. 오른지기자

제주의 풍광과 삶 고스란히 '탐라의 여정'

12일부터 제15회 (사)현대여성제주작가협회전

제주의 아름다운 풍광과 삶이 작가 저마다의 시선에 담겨 작품 안에 고스란히 스며들었다.

제주의 여성작가들이 공예, 문인화, 사진, 서각, 서양화, 서예, 한국화 등 다양한 장르에서 뛰어난 창의적인 예술작품들을 한 자리에 펼쳐놓는 전시가 열린다.(사)현대여성제주작가협회의 열다섯 번째 정

기 회원전 '탐라의 여정'이다.

전시는 이달 12일부터 28일까지 제주아트센터 삼지갤러리(1층)에서 관람객을 맞는다.

박선희 이사장은 "많은 작가들이 자신만의 감성과 기술로 제주의 아름다운 풍광과 삶을 '탐라의 여정'으로 풀어내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많은 분들에게 큰 영감과 감동이 전



김강자 작 '시간에 남겨진'

달되길 바란다"며 초대장을 띄웠다. 오프닝 행사는 13일 오후 3시부터 진행되며 개막전 행사로 서예,

문인화 현장취회 퍼포먼스가 준비됐다. 전시기간 다양한 체험활동도 이뤄질 예정이다. 오른지기자

"마음에서 마음으로 깨달음의 교감"

소암기념관 특별기획전 11일부터 7월 2일까지



소암 현충화 작 '대웅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소암기념관이 특별기획전을 준비했다. 소암 현충화 선생의 불교 작품들과 국내 대표 사찰 소장 유물 등 50여 점을 함께 만날 수 있는 '조법산방에 피어난 반야의 향기'다.

이번 전시에선 소암 현충화의 '반야심경', '금강경' 작품을 비롯해 다양한 선시들과 서귀포 법화사 대웅전 편액, 제주 국청사 대웅전 주련 등의 작품이 소개된다. 또 경상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통도사 건륭17년(1752년)아미타후불탱'과 불교의 수행과정을 소와 동자에 비유해 설명한 '심우도 팔곡 병풍', 1600년대에 간행된 '묘법연화경(법화경)' 등 귀중한 불교 유물들도 전시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소암의 예술세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불교과 선확'이라는 화두를 조명하기 위해 기획된 전시며, 소암 작품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다양한 불교 유물들을 함께 소개할 수 있는 구성으로 준비했다"며 "전시를 관람하는 모든 분에게 마음에서 마음으로 깨달음의 교감과 행복이 전해졌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전시는 소암기념관 전시실에서 이달 11일부터 7월 2일까지 진행된다. 관람료는 무료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할 수 있다.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다. 오른지기자

대한민국연극제 제주 관객 리포터즈 모집

한국연극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지회장 정민자)는 오는 6월 열리는 '제41회 대한민국연극제 제주'의 성공적인 개최 및 다각적 홍보, 관객 유치 붐 조성을 위한 관객 리포터즈를 운영한다.

'대한민국연극제 제주'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만 18세 제주도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이달 19일까지며, 선정결과는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된다.

활동기간은 위촉일로부터 폐막 일인 7월 3일까지 진행된다. 이 기간 '제41회 대한민국연극제 제주' 공연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모든 행사 관람 후에는 리포터를 제출해야 한다.

관객 리포터즈에겐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되며 가장 열심히 활동한 리포터에겐 별도의 시상도 이뤄질 예정이다. 오른지기자

제주예술단, 가정의 달 특별한 선물

기획연주회... APEC 정상회의 제주 유치 기원도

도립제주예술단 기획 연주회가 이달 19일 오후 7시30분 제주아트센터에서 열린다.

이날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유명한 오페라 서곡, 아리아, 합창곡이 제주교향악단과 제주합창단의 합동 연주로 펼쳐진다.

더불어 2025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제주 유치를 기원하는 밝고 희망찬 곡을 선정해 도민 화합의 장으로 꾸밀 예정이다.

관람 신청은 사전 온라인 예약을 통해 무료로 진행되며, 제주예술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오른지기자

수축상
CONGRATULATIONS

대통령표창 (장한어버이상)



김 병 수

대통령표창(장한어버이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신흥2리 손위동서 김석중
처형 김계순
태흥1리 처남 김문화
처남 맥 강길자
처조카 일동

승축진
CONGRATULATIONS

서귀포소방서 현장대응단장



정 영 식

소방령 승진을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중문고등학교 17회(청송회)
회장 강상근 외 회원 일동

한라일보가 제주의 대표 신문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섰습니다.

한라일보가 **大勢** 세 다!

결혼·부고·축하광고 도내 최다 게재
제주도내 최고의 신문광고 효과!!

문화체육관광부·한국언론진흥재단 2021신문잡지 이용조사
열독률·유료구독률 제주도내 1위

2023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2005년부터 17회, 제주지역 '최다 선정'

도내 언론사 최초 '마리' 품질인증 **01** 제주지역 유료판매부수 1위 **03**
미래창조과학부 / 2016년 발표 한국ABC협회 / 2016~2021년

제주지역신문 신뢰도 1위 **02** 제주지역 발행부수 1위 **04**
리얼미터 / 2015년 발표 한국ABC협회 / 2020~2021년 발표

광고 750-2830 · 구독 750-2330 · 서귀지사 732-5552